

6개국 100여개 기업·기관 참가... 18종 신차 공개 예정

서울모빌리티쇼 기자간담회

오는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개최 UAM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집약 BMW 등 10개 완성차 브랜드 참여 서울모빌리티어워드 첫 도입

국내 최대 종합산업전시회인 '서울모빌리티쇼' 개막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전동화와 자율주행 확산에 맞춰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이름을 바꾼 '서울 모빌리티쇼'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0일 동안 킨텍스(경기도 고양)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다양한 국내외 완성차 브랜드들의 신차와 함께 미래 UAM(도시항공모빌리티) 부문에서 선보일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개발 방향성, 수소전기차, 로봇, 미래 자율주행 기술 등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신산업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1서울모빌리티쇼는 탄소중립을 위한 전동화, 자율주행,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로봇, 서비스형 이동 수단(MaaS) 등 새로운 모빌리티 분야의 등장과 성장성 등을 고려해, 신기술이 기반이 되는 '모빌리티' 중심의 전시회로 열겠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지난 10월 행사 명칭을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서울모빌리티쇼'로 변경한 바 있다.



고문수 부위원장(왼쪽부터), 정만기 위원장, 임한규 부위원장, 서장석 사무총장이 10일 오전 '서울모빌리티쇼' 기자간담회에서 행사의 주요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고문수 부위원장(왼쪽부터), 정만기 위원장, 임한규 부위원장, 서장석 사무총장이 10일 오전 '서울모빌리티쇼' 기자간담회에서 행사의 주요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개막 일정이 2번 변경됐지만 완성차 브랜드 및 부품, 모빌리티(모빌리티, 모빌리티 라이프, 인큐베이팅 존) 등의 부문에서 전 세계 6개국 100여개 기업·기관이 참가한다. 단 글로벌 주요 완성차 브랜드들은 줄어들어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아우디, BMW, 마세라티, 메르세데스-벤츠, 미니, 포르쉐 등 총 10개 브랜드만 참여한다.

신차는 잠정적으로 아시아프리미어 4종, 코리아프리미어 14종 등 약 18종으로 집계됐고 ▲수소연료전지 ▲전기차 플랫폼 ▲인공지능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지털 사이드 미러 ▲차량용 반도체 등 신기술도 선보인다.

모빌리티 부문에서는 대창모터스, 마스터자동차, 블루샤크, SK텔레콤, E V KMC, 클럽멤버 등 약 20개사가 부스를 꾸리며, 용품 기업 중심의 모빌리티 라이프 부문에서는 5개사가 참가한다.

이번 전시 기간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모빌리티 분야의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기술을 조망하는 서울모빌리티어워드를 이번 전시회에 처음 도입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전망과 발전전략을 논하는 산업연합포럼을 11월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개최한다.

정만기 조직위원장은 "서울모빌리티쇼는 B2C전시회의 장점을 살려가면서도 B2B전시회로서 자동차 분야 뿐만 아니라 로봇, 드론 등 새로운 모빌리티는 물론 모빌리티 공유 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아시아의 대표적 글로벌 기술전시회로 발전시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모빌리티쇼는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OICA)가 공인한 국내 유일의 국제 모터쇼로 1995년 첫 회를 시작으로 격년 단위로 매 홀수 해에 개최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최태원 SK회장, 존 오소프 美 상원의원 회동

배터리·수소 등 한·미 경제협력 방안 강구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주제 논의 친환경 비즈니스 과감한 투자 강조 "美 사회문제 해결하며 함께 성장"

최태원 SK 회장이 미국과 사회적 가치 협력을 논의했다.

10일 SK에 따르면 최 회장은 9일 저녁 서울 서린빌딩에서 존 오소프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을 만나 ESG를 중심으로 한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회장이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 경제 외교에 나서는 상황, 오소프 의원도 한국을 찾아 SK와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 이날 자리에는 크리스토퍼 델 코스 주한 미국 대사대리 등도 함께 했다.

오소프 의원은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 출신이다. 기후 변화 대응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신재생 에너지 등 에코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 정가의 차세대 주자로 평가받는다.

지난 5월 최 회장이 경제사절단으로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존 오소프 미국 조지아주 상원 의원. /SK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회동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오소프 의원과 ESG에 기반한 성장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인해 이날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수소 등 그린 비즈니스에서의 양국간 협력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 회장은 SK그룹이 배터리와 수소 등 친환경 비즈니스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미국 내 온실가스 감축과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구축, 일자리 창출에

도 기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같은 투자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미국 내 환경 문제, 일자리 문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함께 성장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SKC가 조지아주에서 생산할 반도체 패키징용 글라스 기판도 전력 소모량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데이터 처리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며, 이 같은 그린 비즈니스가 미국이 2030년까지 줄여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의 3.3%를 감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탄소저감은 전 지구적인 문제이고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보다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훨씬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민간 섹터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정책적 제안도 제시했다.

/김재용 기자 juk@

현대중-미래에셋, 340억 투자펀드 조성

디지털헬스케어·바이오 벤처기업 키운다

'신성장 투자조합 1호' 결성

현대중공업지주가 미래에셋그룹과 34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해 디지털 헬스케어·바이오 분야의 유망 벤처기업 발굴에 나선다.

현대중공업지주는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현대중공업지주 신성장 투자조합 1호'를 결성했다고 10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대웅제약,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재단도 출자에 참여하며, 펀드 운용기간은 10년이다.

양사는 펀드 조성을 통해 원격 의료, 디지털 치료제,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와 바이오 신약 개발 분야의 유망 벤처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투자한다. 서울아산병원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협력할 예정이다.

양사는 벤처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디지털 헬스 및 바이오 벤처기업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벤처기업들의 신기술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이번 펀드 결성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신규 사업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19년 1063억 달러(약 125조원)에서 연평균 29.5%씩 성장해 2026년에는 6394억 달러(약 7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부터 수소, 인공지능(AI), 로봇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며 기술 중심 그룹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헬스케어 등 헬스·바이오 분야에서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지주 관계자는 "디지털 헬스케어·바이오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라며 "펀드를 통해 해당 분야를 선도할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신사업 분야를 적극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KT, '따뜻한 기술 더하기 챌린지' 성과 발표

에코피스, 오파테크, 포인핸드 시상

KT는 10일, '따뜻한 기술 더하기 챌린지' 최종 성과 발표회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KT 광화문 이스트사옥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따뜻한 기술 더하기 챌린지' 프로젝트는 KT가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공모전이다.

이번 최종 성과 발표회에는 KT 구현모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현곤 원장,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송경용 이사장 등이 참석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뜻을 함께 했다.

이번 최종성과 발표회에서는 참여기업의 성과 발표와 함께 우수기업으로

선발된 에코피스, 오파테크, 포인핸드 3개 기업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KT 구현모 대표는 "따뜻한 기술 더하기 챌린지"는 우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사명감에서 출발했다"며 "대한민국 대표 디지털플랫폼 기업인 KT는 따뜻한 기술 더하기 챌린지 프로젝트가 우리 사회에 가치를 더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

매스프레소, 구글서 전략적 투자 유치

'관다' 기술 고도화 가속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앱 '관다' 운영사인 매스프레소가 구글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양사는 이번 전략적 투자 유치를 계기로 학생들에게 통합적인 디지털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양사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관다의 글로벌 시장 선점과 기술 고도화에 가속화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매스프레소가 2016년 1월 출시한 관다는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를 찍어서 검색하면 5초 내 해당 문제의 풀이와 함께 관련 유형 문제, 개념 영상 등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채윤정 기자